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백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일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10/30	11/6	11/13	11/20
헬로우십 다과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어린이 돌봄	조혜연,박주애 / 이남순,조지영	최설아,김윤진 / 노현주,전혜경	이은경,조희정 / 이윤경,이창열	장경림,신윤선 / 유세정,박나경
주차 봉사	유광현/홍영기	이호순/이형섭	임종화/황규섭	김동현/지종성
예배 안내	IMAN (10월) & 바마코 (11월)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5가정(부부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부부 목장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연	조유희/희정	금 7:30pm
투르카나	이장춘/영주	미정
IMAN	나정우/찬미	금 7:30 pm
MK	김민수/미숙	금 7:30 pm
메나	홍영기/진영	금 6 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 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 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 am
스팍스	박진환/미희	주일 4p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금 8pm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형제 목장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목장		
사론	손국자	수 11 am
미얀마	김하운	목 10am
백향목	최영선	금 7 pm
아테네	이미영	월 10a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1-11)

균형 잡힌 성장	응답하는 예배	살롬 공동체	변혁 공동체
Pursuing Truth	Responding in Worship	Marked by Love	Living the Gospel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북한과 하나님 나라(Part 1)

번역사역팀

북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하여 북한의 기독교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기의 글을 나눕니다.

한국은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누구와도 통상을 맺지 않고 세계 정세에서 고립된 가운데 20세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등의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갈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제 식민 통치와 6.25를 거치면서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조선말기로부터 120년이란 시간이 흘러 한국은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세계에서 두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171개국27,205명(한국세계선교협회의 회, 2015)) 되었습니다. 과연 그 씨앗은 누가 뿌린 것일까요?

최초로 조선을 방문한 선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실로는, 1832년 네델란드 선교회에서 파송한 Gutzlaff입니다. 그는 한글로 주기도문 번역을 최초로 시도한 인물로, 충청도 고대도에 도착 후, 복음을 전하면서, 감자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주민들에게 약과 전도문서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한달만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1866년 Thomas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으로 두달 반동안 황해도에서 선교여행을 하게되고, 추후 미국 무장선 제너럴 서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했지만, 군사들의 저지로 인해 27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박춘권씨는 토마스가 죽어가며 던진 성경을 읽고, 추후 예수님을 믿게 되고 평양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에게 성경을 받은 이들 중 장사포의 홍신길씨는 서가교회를, 석호정 만경대의 최치량씨는 평양교회를 창설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 제너럴 서먼호 사건으로 인한 미국의 보복은 신미양요를 일으키고, 얼마 후 1882년 강압적인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교회가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후 1885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Underwood와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Appenzeller를 비롯한 많은 미국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을 한국선교의 원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인천 제물포에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누가복음이 만주에서 사역하던 Thomas에 이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파송된 Ross와 McIntyre에 의해 이미 보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Ross와 McIntyre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서상륜씨는 1887년 Underwood에게 세례를 받고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목사 7인 중 한명이 되어 솔내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서상륜씨의 동생인 서경조씨 또한 1900년 솔내교회에서 최초의 장로가 되어 해서지방의 교회 설립을 위해 힘쓰며, 1907년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Ross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된 백흥준씨는 만주에서 Ross의 세례를 받고 성경번역을 돕게 됩니다. 이후 1887년 Underwood가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 교회를 창립할 때 서상륜씨와 함께 초대 장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백흥준씨는 순회전도집회를 다니다가 1892년 체포되어 한국 개신교 사상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순교를 맞게 됩니다. 또한 Ross의 전도를 받은 이성하씨는 최초로 세례를 받은 한국인 4인 중 한 사람으로 의주, 서울 등지에서 전도를 하였고, 그의 아내는 Underwood에게 세례를 받고 한국교회 최초의 여자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선교 원년 이전에 뿌려진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지금의 북한과 남한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만드셨습니다.

Underwood와 Appenzeller는 한국 선교사적으로 교육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더불어 눈여겨 볼만한 선교사들의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캐나다 YMCA 파송 선교사인 Hardie입니다. 그는 강원도에서 의료개척사역을 하다가 열댓 맺지 못하고, 1903년 원산에서 열렸던 기도회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나는 3년동안 남감리교회가 강원도에 세운 교회를 위해 일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되는 원인이 한국인에게 있는줄 알았는데 그 원인이 나한테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교만과 완악함과 신앙의 부족을 회개합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였고, 이 고백이 평양 일대와 전국 각지의 부흥운동과 회개운동으로 퍼져나가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됩니다.

일제 강점을 거치면서, 해방이후 김일성이 가장 두려워한 대상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신의주 제일교회,제이교회의 목사인 윤하영,한경직을 중심으로 1945년에 기독교 사회 민주당이 결성되었는데, 결국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그해 11월 16일 사회민주당 용암포지부 결성대회 때에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일단의 청년들의 습격으로 유명한 신의주 학생의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북한을 공산화하려는 소련군정의 음모에 투쟁하던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를 하거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에는 10개 노회에 2천여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당국에 의해 최초로 1988년 평양에 세워진 봉수교회가 있고, 그 이후 김일성이 자신의 어머니 강반석과 함께 어린시절 교회에 다녔다는 칠골이라는 동네에 1992년 세워진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이들 교회는 유명무실할지라도 지하교회는 남북분단 이후에 깊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8년 평북 용천의 이관화목사 사건, 1959년 박천에서의 인민학교 여교사 체포와 그 이후 1966년 잔여 교인들의 색출사건, 1968년 평남 온천군 운하리의 박목사 사건, 1974년 10월 함흥에서 적발된 김대웅목사와 교인들 소탕사건, 더욱이 1970년대 이후 적발된 기독교인들을 평박섬섬에 수천명을 유배시킨 일과 신의주 자강도, 함북, 황해도 등지에서의 지하교회 적발사건, 등은 분명 지하교회가 살아 움직이며 성도들의 신앙이 가정 교회들을 이루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 더욱 굳건히 교회가 서 나갔던 사실이 이를 또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내 대북지원 단체는 Mercy Corps, World Vision, Global Resource, Samaritan's Purse, Christian Friends of Korea(CFK)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CFK는 한국에서 사역했던 미국선교사 자녀들이 1995년부터 창립하여 대북지원에 나서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대북지원은 대부분 의료, 식량 및 식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wma.org/>
- CFK: <http://cfk.org/>
- '역사로 본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 미주밀알선교회 강석진 목사
- CGN TV "아름다운 발걸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O4I-pJ08B0>
- Mercy Corps: <https://www.mercycorps.org/articles/north-korea/demystifying-our-work-north-korea>
- World Vision: <http://www.wvi.org/north-korea>
- Global Resource: <http://grsworld.org/>
- Samaritan's Purse: <https://www.samaritanspurse.org/donation-items/north-korea-relief/>

◆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제목

- 북한 내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해주시고, 더욱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과의 교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올바른 역할들을 감당하고, 한국 땅에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북한에 관한 기도제목들은 아래의 북한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단체에서 쉽게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 정보

Esther prayer movement	www.pray24.net
Cornerstone ministries international	http://www.cornerstone.or.kr/cornerstonekr/ http://www.cornerstoneusa.org/
RFA (Radio Free Asia)	http://www.rfa.org/english/
Christian Mission for North Korea	http://cmnk.or.kr/since74/?ckattempt=1
Back to Jesus	http://www.durihana.com/
Dawn Mission	http://www.dawnmission.org/renew/eng/index_eng.htm
Research Institute for North Korea at Seoul seminary school	http://imm4n.cafe24.com/bbs/index
Sharing with North Korea	http://sharing.net/
THE KOREAN ECUMENICAL	http://academy.cck.or.kr/
REAH International	http://www.reah.org/
YUST	http://www.yust.edu/ysm/en/main
PUST	
AIIM: Antio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inistries	http://ywam-aiim.org/
Christian Friends of Korea (CFK)	http://cfk.org/about-cfk/
Eugene Bell Foundation	https://www.eugenebell.org:50008/

빌리지 알리판

@ 한인부

1. 2016년 가을학기 성장 프로그램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 '믿음의 삶'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헬로우십을 마치고 벽난로방에서 함께 식사후, Willamette A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돌봄: 홍진영 & 나찬미 자매 @ 135번방)

2. 주일예배 말씀노트

오늘부터 주일예배 말씀노트가 별도의 용지로 출력됩니다.

3. 금주 수요일예배 (11/2)

금주 수요일예배에서는 빌리지의 파송선교사이신 David Castaneda 선교사님 (IDEAS, 레바논)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며, 통역이 있습니다.

4. 일광절약제 해제 (11/6)

다음 주일인 11월 6일 새벽 2시를 기준으로 2016년도 일광절약제 (Daylight Saving)가 해제됩니다. 새벽 2시가 1시로 변경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새가족 환영회 (11/12)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문의: 박정연 자매)

- 일시: 11월 12일 (토) 5pm
- 장소: 홍영기/홍진영 가정 자택

6. 날마다 솟는 샘물 11월호 (\$4/권)

11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나 헬로우십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 지역

1. 오레곤 청소년 연합집회

오레곤 교회연합회 주최로 청소년 연합집회가 있으며, 청소년들의 참여를 권면드립니다.

- 일시: 11월 4일 (금) 7:30pm & 5일 (토) 7:30pm
- 장소: 오레곤 벨엘장로교회 (18370 SW Shaw St. Beaverton)
- 주제: Walking in Love (Ephesian 5)
- 강사: Rev. Jae Park (Grace Community Chapel, New Jersey)
- 주최: 오레곤 교회연합회

2. 북한을 위한 기도모임 (Reah)

북한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를 위해 기도하는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소그룹 기도모임이 있으며, 성도님들을 초청드립니다. 모임은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일정: 11월 5일 (토) 1pm
- 장소: 빌리지 침례교회, Columbia A
- 주최: Reah International (www.reah.org)

@ 은 교회

1. 장로 회장직 기간 연장 투표 결과

이주 전 은교회 회의에서 장로 회장직의 기간 연장에 대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6년동안 장로 회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Dan Crawford 형제의 임기가 곧 만료 됩니다만, 담임목회자 청빙 과정의 전환기이니만큼 장로회는 Dan 형제의 임기를 1년 연장받도록 하는 투표를 하였고, 투표 결과에 따라 연장이 허락되었음을 알립니다.

2. 빌리지 목회자 및 장로: 다문화사역 컨퍼런스 참석

오는 11월 1-4일까지 빌리지의 모든 목회자들과 3명의 장로들은 Mosaix Conference라는 다문화사역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리지에게 허락하신 다문화교회로서의 사명을 더욱 신실하고 효율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통찰의 기회로 리더십이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계기를 통해 더욱 신실한 다문화교회와 사역자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모든 지출은 빌리지 재정과 무관하며, 빌리지 리더십팀의 별도 도네이션으로 진행됩니다.

3. 반즈 초등학교 정원 관리 작업 (Garden Work Day)

다음 주 토요일, 반즈 초등학교 학생 정원 관리 작업에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은 도구와 작업복을 준비하셔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Lara_Richardson@beaverton.k12.or.us)

- 일시: 11월 5일 (토), 10am-12pm
- 장소: Barnes Student Garden

4. 세계 선교 소식 이메일 신청 (globalupdate.vbconline.org)

앞으로 빌리지 세계 선교에 대한 최근 소식과 기도 제목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등록하셔서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globalupdate.vbconline.org에서 싸인업 하시면 됩니다. (문의: Leslie Erickson, lesliee@vbconline.org)

5. 2017년 빌리지 가족 수양회 (8/8-13, 2017@ Nehalem Bay State Park)

빌리지 최대 야외행사로, 빌리지 다른 가족들과 교제하실 수 있는 빌리지 가족 수양회의 등록이 10/1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교회 로비&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은 11/8까지 입니다. (문의: susanm@vbconline.org).

6. 포인세티아 (Poinsettia) 판매

10월 한달동안, 중고등부 2017년 여름 수양회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목적으로 6"와 8" 포인세티아를 판매합니다. 교회 로비에서 주문하신 후, 추수감사절 이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2016 현금 업데이트

9월 현금 참여자	511 (잠재 참여자 900+)
1-9월 예산	\$2,424,835
1-9월 현금	\$2,065,637
매월 목표 금액	\$269,426
10월 1-23일 현금	\$243,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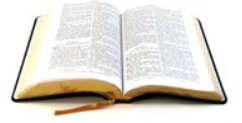
* 현금 참여자 (giving participant) 란?
현금을 내는 1인 또는 1가정을 뜻하며, 대학생 한 명을 1현금 참여자,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 가정을 1현금 참여자, 부부를 1현금 참여자로 간주합니다.

빌리지 대출	이자율
\$5,225,218	2.95%

삶으로 말씀읽기:

-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관대하게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뜻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대하게 주도록 만들어진 우리를 관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How do you respond to the idea that we, as the Image of God, are built to give generously? Why do you think it is so easy for us to draw back from giving? What gets in the way of the generosity we were built for?
-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헌금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사고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What are some of the ways that you find yourself thinking about giving – tithing – stewardship – as a rigid category of compliance, rather than a relational category of love? What difference might it make to your thinking to let love draw you to action, rather than obligation/duty driving you to action?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헌금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신명기 14장에 나온 말씀, 즉 때로는 우리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십일조를 즐기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와같은 일이 가능하게 되되 항상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헌금과 재물에 대해 어떠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까?
Given that God doesn't need our money – that giving is more about us than it is about Him – how do you respond to the idea that is put forward in Deuteronomy 14, namely that, on occasion, we can take our tithe and enjoy ourselves with it? What is the overall disposition and practice that makes this possible and prevents it from becoming the rule?
- 오늘 말씀에서 받은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목장에서 목원들 사이에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allenge you are sensing in all of this? How can our group support you this week?

하나님 나라 이야기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의 재물
Living Thankfully: Our Resources

본문: 창1:26-31; 출
25:1-8; 눅21:1-4;
20:45-47;
신14:22-27
설교: 빌 독테롬 교수

창세기 1장 26-31절

-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출애굽기 25장 1-8절

-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 (3절)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 (4절)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 (5절)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 (6절)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 (7절)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 (8절)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누가복음 21장 1-4절

-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렘돈 두 닢을 넣는 것을 보셨다
(3절)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4절)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누가복음 20장 45-47절

- (45절)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6절)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47절)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14장 22-27절

- (22절)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23절)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4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절)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27절)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추수감사절 기간까지 “감사”라는 주제 아래, 성경을 근거로, 짧은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이 설교 시리즈의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오늘은 재물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1. 우리는 관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26-31)
2.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1-8)
3.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는 드리는 자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재물은 원치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1:1-4, 20:45-47)
4.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기쁘게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신명기 14:22-27)